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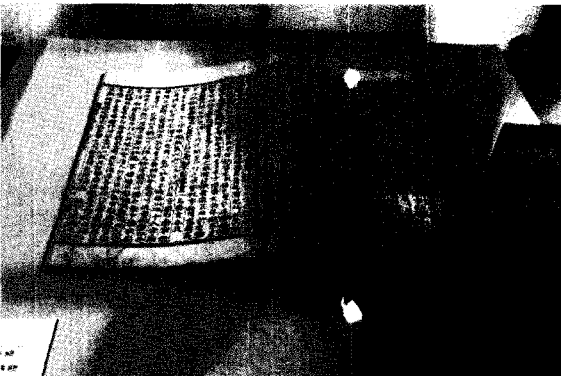
##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성료

### 구텐베르크성경 원본 등 19개국 대표 기록물 전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이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한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ACE 2010)'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기록유산관, 국제기록관, 대한민국기록관, 체험 및 시연전, 기록관리 산업전, 국제회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입구를 지나가면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발달 과정을, 왼쪽은 인류의 기록문화 발달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직지와 팔만대장경 등에 대해, 서양은 구텐베르크 성경 등을 중심으로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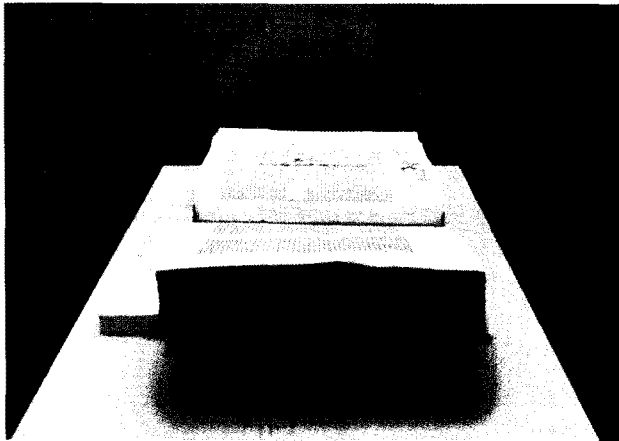
### 세계기록유산관



이번 전시회에는 팔만대장경, 구텐베르크 성경, 조선왕조실록, 백설공주 동화 원본 등 진귀한 기록물들이 대거 전시되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코너에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6건 중 101건이 출품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곳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구텐베르크 42행 성경 원본과 팔만대장경 원판을 함께 전시한 코너였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원본 전시물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직지를 제외한 조선왕조실록과 팔만대장경,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등 5건이다. 이 밖에도 그림형제동화 컬렉션, 프랑스 인권선언문, 에펠탑도면 등이 원본으로 전시되었다. 프랑스의 수에즈 운하 기록과 세르비아 출신 미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기록물, TV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라디오스코프 특허문서, 안네의 일기, 인도의 타밀의학 필사본 등 72건의 세계 기록유산은 사진 이미지로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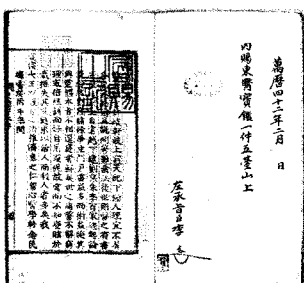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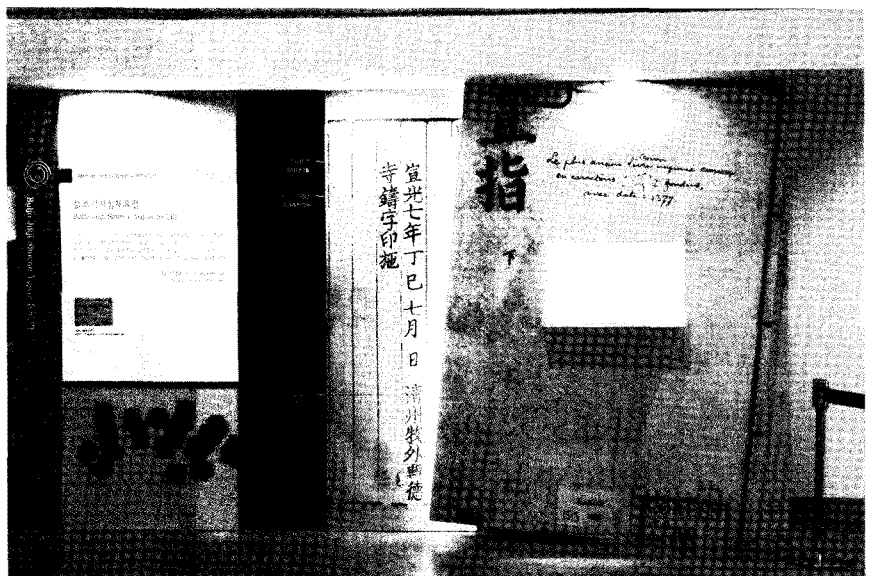
## 해인사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 구텐베르크 42행 성경 나란히 전시



두 유물은 따로 방이 마련되어 전시되었는데, 온도와 습도가 각각 18~22도, 45~55%로 유지되는 특별전시함에 전시되었으며, 경찰이 24시간 지키는 등 보안에도 힘썼다. 해인사대장경판은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팔만대장경판 중 '선행법상경'을 새긴 경판이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했다. 팔만대장경은 1993년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전시하는 것이었으며, 경찰 호위속에 무진동차 운반으로 화제가 되었다. 해인사측에서는 성공적인 나들이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고불식도 열었다. 팔만대장경 못지않게 시선을 사로잡는 전시물 중 하나가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이다. 구텐베르크가 1454년 인쇄한 양피지본 성경 45부 중 독일 베를린국립도서관 소장본이 전시됐다. '불기타 성경'이라 불리는 라틴어판 구약 및 신약성경을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경은 원래 2권, 총 1282쪽으로 돼 있으며, 2권 중 1권은 원본이며, 나머지 1권은 복제본이 선보였다.

## 직지는 아쉬움속에 영인본만 전시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섰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였던 박병선 박사가 발견했는데,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프랑스와 협의 후 2001년 우리나라가 등재했다. 이외에도 동의보감, 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등의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들이 원본으로 전시되었다.



## 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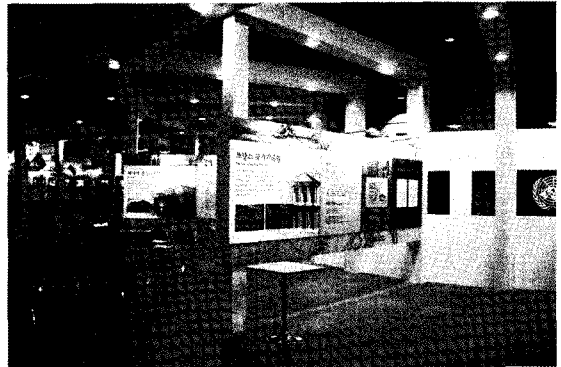


야코프와 빌헬름 그림 형제가 1812년과 1815년 독일과 유럽은 물론 동양에서까지 구전되던 전래동화를 채집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필사본이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이다. 지난 2005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독일 그림형제협회 소장 그림형제 동화집의 초판인 카셀 주석본에는 삽화가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에는 '백설공주'를 포함한 그림형제 동화집 초판의 복제본 2권과 최초의 흑백삽화본(1825년) 및 컬러삽화본(1826년) 원본 등 모두 4권이 선보였다.

## 국제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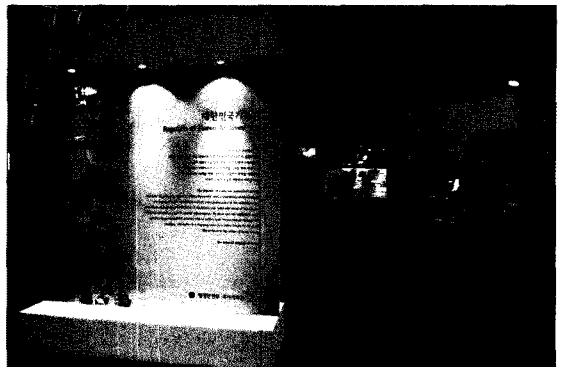
유엔,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 참가했다. 국제기록관에서 이목을 끈 것은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에펠탑 도면 원본이 전시된 프랑스 국가기록원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1792, 원본)은 1789년 국민의회의 대표자들은 인간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는 인권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헌법을 제정할 것을 결정했다. 에펠탑 설계도면(1884, 원본)은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건축가인 귀스타브 에펠이 건의하여 세운 에펠탑 도면으로, 탑은 26개월의 공사기간과 약 1만톤의 철제 구조물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헝가리의 이스트반왕 수도원 설립증서, 러시아의 18세기 한국지도 등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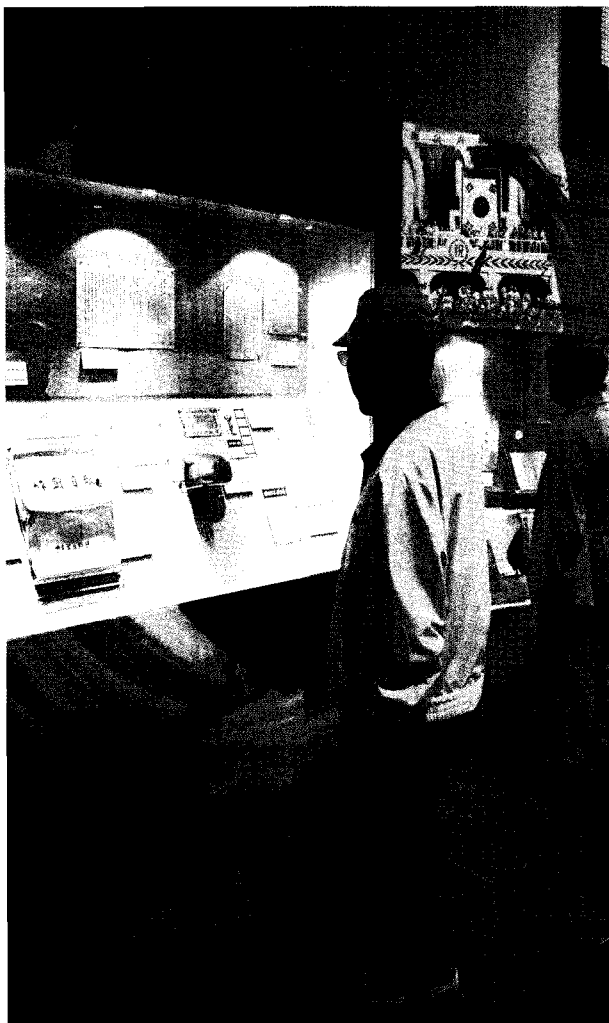
## 대한민국기록관

대한민국기록관은 대한민국 성장 및 발전에서부터 해외한인 그리고 기록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의 성장 및 발전' 코너에서는 관련 기록과 영상 등을 전시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동적 사회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외한인의 삶' 코너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자료로 소개했으며, 근현대 다양한 기록물을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 코너에는 일기, 만화, 방송·영화 등 12개로 구분하여 전시했다.



## 대한민국 성장 및 발전 코너

'전쟁전단 및 제작계획서'는 6·25 전쟁 60년을 맞아하여, 남북간의 심리전과 치열한 공방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맹퇴치' 관련 기록물은 1950~1960년대까지의 담화문, 문맹퇴치 계획, 한글 첫걸음, 국민독본 등이 전시됐다.



## 대기록이 전하는 세상이야기 코너

'일기' 컬렉션은 난중일기 원본을 비롯하여 김구,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자필일기 등이 전시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된 1592~1598까지 7년간 진중에서 쓴 일기로 국보 76호다.

'만화' 컬렉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기도 부천)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화 관련 자료를 전시했다. 언론사상 최장기 연재기록(1955.2.1~2000.9.29, 총 14,139회)을 세운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영감>(1956)과 대한민국 최초의 만화 베스트셀러인 김종래 화백의 <엄마찾아 삼만리>(1958)외에 <공포의 외인구단>(1983, 이현세), <달려라 하니>(1980, 이진주) 등이 전시되었다.

'선거' 컬렉션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까지 60여 년의 각종 선거 관련 자료를 전시했다. 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인쇄물 등 다양한 선거관련 기록물과 포스터, 표어, 선거에 사용된 용구와 용품 등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 국제기록문화전시관의 체험 및 산업전도 열려

전시관을 관람 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마련되었다. 탁본체험, 족자, 부채 색칠하기, 한지만들기, 옛 서적만들기, 명함만들기, 디지털 초상화 만들기 등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지장인이 직접 보여주는 한지만드는 과정, 이창식 각자장이 직접 목판에 글을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함께 인쇄/전자책/도서관분야, 전산/전자기록물, 시설/보안/환경 등의 기록관련 업체들이 참여했다. 인쇄분야에는 후가공 솔루션을 공급하는 후술과 CG코리아가 참여해 제품들을 소개했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기록문화  
International Culture Exhibition 2010, Korea

